

# 청년 가구의 경제 현황과 지원 방안<sup>1)</sup>



Economic Status and Support Plan for Youth Households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예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글에서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이 있는 가구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였다. 청년이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69만 1000원, 월평균 생활비는 242만 6000원으로 48.3%의 흑자율을 나타낸다. 청년 가구의 총자산은 평균 2억 9880만 원, 중위자산은 2억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부채는 약 2177만 원인데, 부채만 있는 청년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약 6577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지출 항목별로는 식비 지출이 많았으며, 이어 교통비와 교육비 순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청년 가구 유형별 지출을 보면 청년 독립 1인 가구가 모든 지출 항목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 비독립 1인 가구는 소득과 지출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이들 가구를 지원하는 부모 세대의 부담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청년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청년 가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비(주거, 교통, 교육, 금융비용 등)를 낮추거나 줄일 수 있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

## 1. 들어가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영향으로 경제 봉쇄 조치가 취해지

면서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가 전기 대비 1.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민간소비 역시 크

1) 이 글은 정세정 외(발간 예정).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수정한 것이다.

게 감소하고 있다(한국은행, 2020). 고용은 더욱 열악하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4월 기준 47만 6000명 줄었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0.9%로 전년 동월 대비 2.0% 줄었는데, 취업자 수로는 24만 5000명 감소한 것이다(고용노동부, 2020). 코로나19가 청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어느 한 측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다차원적으로 다방면에서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노동시장 참여, 주거, 결혼, 사회적 관계(부모, 친구, 주변인 등) 등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주어진 삶은 너무나 무겁다.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안정적 취업이 보장되는 과거에는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 활동을 통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었지만, 저성장과 노동시장 유연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국면에서 청년층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난관과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위기의 청년을 돕기 위한 청년 지원 정책은 하나의 특정 정책이 아니라 청년의 이행 상태와 그들이 처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정세정, 2020).

다양한 영역에서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이 속한 가구 혹은 청년 개인이 충분한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나을 수 있다. 청년이 독립된 생활을 원하거나 결혼 등을 고려할 때, 소득과 자산은 주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해 소득이 있거나, 부모 등 외부적 도움을 받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다면 독립생활을 원하는 청년은 쉽게 주거를 구하거나, 독립생활을 통해 누리고자 하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자산 역시 유효한 자원이 된다. 결혼을 하려 할 때 자산이 있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창업을 준비할 때(자재비, 사무실 등)에도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세대 청년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청년 1인 가구에 주목하였다. 청년 1인 가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 독립을 해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비독립 청년과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 청년이다.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독립한 1인 청년은 주택, 노동 참여, 사회활동 등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함에 따라 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1인 청년 가구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청년 시기의 이행 상태,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19년에 청년 관련 실태조사를 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3018명을 대상으로 가구 일반 사항, 노동시장 참여 형태, 경제적 상황, 사회적 관계 등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지출 및 자산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대해 질문하였다.<sup>2)</sup>

이 글에서는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

사'를 기반으로 현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자산 현황을 살펴보고, 무엇이 부족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부문의 지원이 절실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청년 가구 중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되는 청년 1인 가구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지원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청년 가구의 소득과 지출 수준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기준 전체 청년 가구의 총생활비 평균은 242만 6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비가 많았고, 대학 재학/휴학/수료인 응답자가 고졸 이하, 대졸 이상보다 생활비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응답자의 평균 생활비가 가장 많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부모 동거 청년(290만 원)과 부모 동거 청년 기타(304만 5000원) 가구의 생활비가 많았다.

생활비를 세부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비의 경우 청년 가구 전체 평균 금액은 90만 8000원으로 총생활비의 37.4%를 차지했다. 식비 지출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25~29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간이지만 더 많았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지역별로는 서울(101만 5000

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부모 동거 청년(107만 7000원), 부모 동거 청년 기타(120만 원)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의 식비가 부모와 별거하는 청년 가구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시사점은 청년 독립 1인 가구, 청년 비독립 1인 가구의 총생활비가 낮다는 것이다.

주거비는 예상하는 대로 청년 독립 1인(32만 1000원)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 비독립 기타(34만 5000원) 가구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식비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의 경우 평균(28만 3000원)보다 높은 금액이 19~24세(50만 6000원), 대학 재학/휴학/수료(65만 5000원), 부모 동거 청년(40만 2000원) 가구에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19~24세가 대학 졸업 이전의 연령대임을 고려할 때 예상 가능한 결과로 보인다. 다른 응답자 특성에 비해 이들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을 볼 때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19~24세 청년, 대학 재학/휴학/수료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신비의 평균은 20만 원, 교통비의 평균은 30만 1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두 항목 모두 부모 동거 청년 가구와 부모 동거 청년 기타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문화·여가비의 전체 평균은 20

2)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는 3018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는 개인 단위로 진행되었지만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는 청년이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즉, 청년이 속한 3018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청년이 속한 가구가 52.1%(1572가구), 여성 청년이 속한 가구가 47.9%(1446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19.2%(761가구)이다. 주요한 가구 형태별로 보면 청년 비독립 1인 가구가 7.0%(214가구), 청년 독립 1인 가구는 12.2%(547가구)이며, 부모 동거 청년 가구는 57.6%(1677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청년 부부와 자녀가 있는 경우는 11.2%(253가구), 청년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6.1%(143가구)가 조사 완료되었다(정세정 외, 발간 예정).

만 6000원이다. 성별·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대졸 이상 학력에서, 비수도권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부모 동거 청년, 부모 동거 청년 기타 가구에서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부모와 별거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받는 청년 비독립 1인 가구와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에 서는 낮게 나타났다. 부모 동거 청년 가구는 월세를 포함한 주거비 부담이 적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독립 가구에 비해 문화·여가비를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출 항목 중 식비 다음으로 교통비가 30만 1000원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청년이, 또 부모와 동거하거나 청년 부부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청년 가구의 교통비가 높았다. 가구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를

표 1. 청년 가구 총생활비 및 지출 종류별 평균 금액

(단위: 만 원/월평균)

구분	총생활비	식비 (가구)	주거비	월세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문화여가비	
계	242.6	90.8	25.2	7.4	28.3	20.0	30.1	20.6	
성별	남성	239.6	89.1	24.9	7.5	28.2	19.7	30.3	20.5
	여성	245.9	92.7	25.7	7.3	28.5	20.3	29.8	20.6
연령	19~24세	258.6	89.8	25.3	7.5	50.6	20.8	29.7	19.0
	25~29세	238.6	91.6	25.6	8.1	19.3	20.4	30.5	21.3
	30~34세	227.1	91.2	25.0	6.1	10.5	18.6	30.1	21.6
학력	고졸 이하	212.3	83.3	25.8	10.1	11.2	19.6	26.0	18.1
	대학 재학/휴학/수료	268.6	87.6	25.1	7.2	65.5	19.9	29.4	18.4
	대졸 이상	240.3	95.8	25.2	6.3	14.0	20.2	32.2	22.8
지역	서울	253.7	101.5	27.5	9.6	24.2	18.9	26.1	16.8
	수도권	244.8	91.8	25.1	9.1	29.2	21.6	29.4	19.2
	비수도권	236.0	85.3	24.4	7.2	29.6	19.4	32.3	23.1
가구 형태 <sup>3)</sup>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232.5	91.6	23.7	4.6	17.8	18.6	28.3	18.3
	청년 부부	208.4	88.0	21.8	3.8	0.6	17.9	28.7	22.6
	청년 독립 1인	136.2	50.2	32.1	24.1	3.1	10.0	13.6	13.4
	청년 독립 기타	207.7	83.9	26.2	9.6	11.9	17.4	25.5	15.7
	청년 비독립 1인	125.1	35.6	31.3	25.0	30.2	7.2	7.3	7.1
	청년 비독립 기타	171.8	65.4	34.5	19.6	16.3	14.3	16.8	11.4
	부모 동거 청년	290.0	107.7	23.6	2.3	40.2	24.5	37.6	24.5
	부모 동거 청년 기타	304.5	120.0	27.5	0	24.4	24.1	37.1	29.2
	기타	153.9	57.1	19.8	8.0	11.2	15.6	16.7	11.1

주: 1) 이 표의 주거비는 주거관리비와 월세를 합한 금액임.  
 2) 가구 형태 중 기타 가구에는 조손 가구, 친인척 동거 등의 가구 형태를 포함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3) 청년 비독립 가구는 부모와 따로 살지만 본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청년 독립 가구는 본인이 가구주로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부모 동거 가구로 정의하였다(정세정 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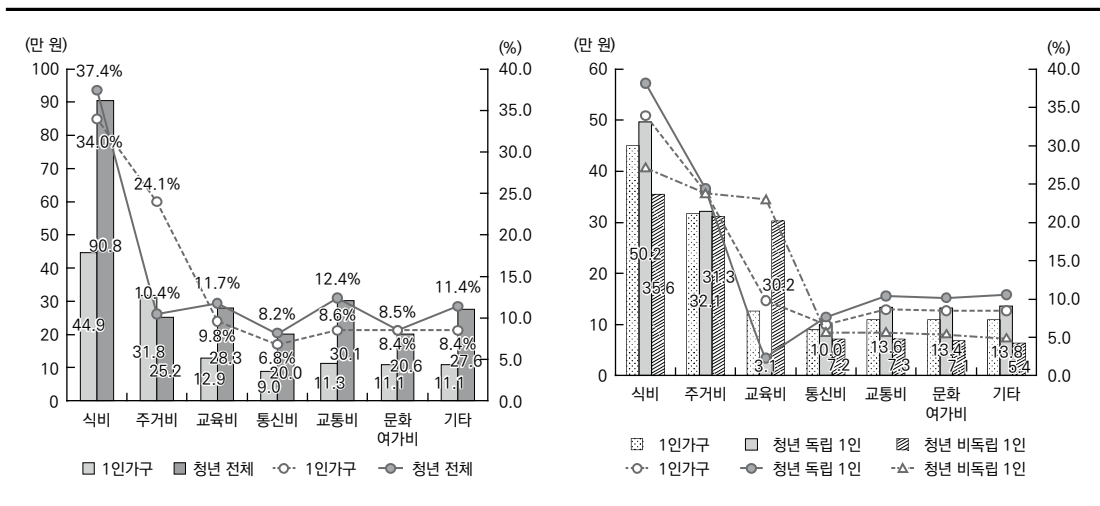
졸업한 이후 초기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통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체 청년 가구와 청년 1인 가구의 지출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인 가구는 24.1%, 전체 가구는 10.4%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액 자체는 31만 8000원과 25만 2000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으나, 생활비 규모가 작은 청년 1인 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체 생활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인 가구 34.0%, 전체 가구 37.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비용은 각각 44만 9000원, 90만 8000원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비의 경우 전체 청년 가구가 28만 3000원(11.7%), 1인 가구가 12만 9000원(9.8%)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고, 통신비는 전체 청년 가구가 20만 원(8.2%), 1인 가구가 9만 원(6.8%)을 지출하였다. 교통비는 전체 청년 가구가 30만 1000원(12.4%), 1인 가구가 11만 3000원(8.6%)을 지출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문화·여가비는 전체 가구가 20만 6000원(8.5%), 1인 가구가 11만 1000원(8.4%)을 지출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청년 가구의 소득 종류별 수준을 살펴보면, 청년 가구의 총소득은 평균 469만 1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은 평균 455만 8000원, 공적이전 소득은 3만 원, 사적이전 소득은 9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총소득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97.2%로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총소득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25~29세, 대졸 이상, 수도

그림 1. 청년 1인 가구(독립 및 비독립) 및 청년 가구 지출 항목별 비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부모 동거 청년 기타(664만 2000원), 부모 동거 청년(575만 7000원)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청년 비독립 1인(139만 5000원), 청년 독립 1인(243만 3000원) 가구는 타 가구 형태에 비해 소득이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청년 비독립 1인 가구의 총생활비는 125만 1000원(식비, 주거비, 교육비가 약 78%)으로 소득과 지출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청년 비독립 1인 가구가 소득을 전적으로 부모 세대 등에게 의존한다고 볼 때, 부모에게 지원받은 소득을 거의 다 소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모 세대의 부담도 상당히 높을 것임

을 예상할 수 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의 경우 총소득과 동일하게 여성, 25~29세, 대졸 이상, 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부모 동거 청년 기타(655만 9000원), 부모 동거 청년(570만 4000원)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청년 비독립 1인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43만 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공적이전 소득의 경우 남성, 30~34세, 대졸 이상, 비수도권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가구가 9만 7000원으로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 동거 청년 기타 가구(6만

표 2. 청년 가구 소득 종류별 수준

(단위: 만 원/월평균)

구분		근로 및 사업	공적이전	사적이전	총소득
계		455.8	3.0	9.4	469.1
성별	남성	451.7	3.2	9.1	464.8
	여성	460.4	2.8	9.7	474.0
연령	19~24세	436.3	1.9	16.5	456.3
	25~29세	475.4	2.5	6.9	485.9
	30~34세	459.0	4.8	3.3	467.2
학력	고졸 이하	424.3	2.7	2.4	430.8
	대학 재학/휴학/수료	419.7	2.2	23.7	446.7
	대졸 이상	489.8	3.6	4.1	498.1
지역	서울	466.0	1.0	14.4	481.5
	수도권	497.3	3.3	5.3	506.5
	비수도권	423.5	3.7	9.8	438.6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408.5	9.7	3.2	421.5
	청년 부부	453.7	0	0.8	456.2
	청년 독립 1인	236.4	0.9	6.0	243.3
	청년 독립 기타	407.5	4.9	1.0	414.3
	청년 비독립 1인	43.0	2.1	94.4	139.5
	청년 비독립 기타	281.7	1.0	49.1	331.7
	부모 동거 청년	570.4	2.3	1.5	575.7
	부모 동거 청년 기타	655.9	6.0	2.2	664.2
	기타	279.3	5.9	16.3	301.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원), 기타 가구(5만 9000원)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적이전 소득의 경우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19~24세가 16만 5000원으로 가장 높고, 30~34세는 3만 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30~34세 연령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높게 나타난 것과 연결해 볼 수 있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휴학/수료에서 23만 70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학업 과정에 있는 청년의 경우 고졸 이하 혹은 대졸 이상 학력에 비해 많은 사적이전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청년의 사적이전 소득이 14만 4000원으로 타 지역에 비해 조금 더 높았다. 가구 형태별로는 청년 비독립 1인 가구가 94만 4000원,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가 49만 1000원으로 사적이전 소득 평균(9만 4000원)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가구 형태의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이 가장 낮다는 점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사적이전 소득이 낮은 가구 형태인 청년 부부, 청년 독립 기타 가구는 경제적인 독립으로 인해 사적이전 소득이 낮고, 총소득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청년 가구의 자산 수준

청년 가구의 재산과 부채 수준을 보면, 먼저 총재산은 약 2억 9880만 원에 총부채는 약 2177만 원이다. 총재산에 비해 총부채는 많지 않은 수준이다. 총재산을 청년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연령별로는 25~

29세가 가장 많은 3억 2556만 원 수준이다. 반면에 총부채는 30~34세가 349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총재산이 가장 많았고 더불어 총부채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여 주듯이 비수도권에 비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총재산과 총부채가 높았다. 총재산과 총부채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가구 형태별 분류에서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가구는 총재산이 4억 원 이상으로 많았으나, 청년 독립 및 청년 비독립 1인 가구는 낮은 수준을 보여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과 큰 차이가 있었다. 청년 부부 가구는 2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에 비해 총부채가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 가구 유형은 부채 중에서 주택 관련 부채가 많아 결혼과 더불어 주택 마련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관련 부채와 이자 등의 비용을 낮추거나 감면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채 종류별로 보면 대부분의 부채가 주택 관련 부채로, 평균 1384만 원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30~34세가, 지역별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 주택 관련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부채는 청년 비독립 기타 가구가 127만 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징적으로 청년 부부, 청년 부부와 자녀 가구도 학자금 부채가 많아 학창 시절의 부채가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 가구와 청년 1인 가구는 소득, 생활비 및

표 3. 청년 가구 자산 및 부채 수준

(단위: 만 원)

구분		총재산	총부채	부채		
				학자금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월평균 이자
계		29,880.5	2,176.9	64.9	1,384.3	9.4
성별	남성	30,332.5	2,108.3	63.0	1,324.9	9.4
	여성	29,369.9	2,254.4	67.2	1,451.5	9.5
연령	19~24세	28,497.3	1,374.9	57.2	747.6	6.2
	25~29세	32,556.2	1,864.2	82.2	1,066.9	8.0
	30~34세	28,755.8	3,489.8	56.1	2,499.7	14.8
학력	고졸 이하	25,730.9	1,951.2	28.9	1,253.6	1,003
	대학 재학/휴학/수료	27,924.2	1,467.2	75.3	807.2	6.3
	대졸 이상	32,746.8	2,680.2	74.1	1,771.5	10.9
지역	서울	43,897.5	3,025.5	47.5	1,861.4	12.3
	수도권	34,833.9	2,552.3	91.4	1,578.7	10.9
	비수도권	20,231.2	1,542.3	55.2	1,038.8	7.1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23,282.2	4,672.5	59.7	3,697.8	17.2
	청년 부부	25,472.7	4,065.5	49.9	3,140.0	14.3
	청년 독립 1인	4,987.3	638.9	41.0	322.0	3.7
	청년 독립 기타	17,718.7	2,393.0	6.7	1,959.6	22.9
	청년 비독립 1인	3,282.8	274.9	87.8	0.5	1.1
	청년 비독립 기타	12,865.2	1,392.4	127.4	197.8	4.9
	부모 동거 청년	41,457.4	2,057.3	72.9	1,125.9	8.7
	부모 동거 청년 기타	40,826.6	2,672.8	6.4	1,869.0	6.8
	기타	18,004.4	1,037.6	76.1	751.8	14.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재산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생활비, 재산은 각각 청년 가구의 43.8%, 54.5%, 14.6%로, 두 가구 유형 간 격차가 컸다. 청년 1인 가구의 소득과 생활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았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 지출, 재산이 모두 낮았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이 비슷했지만, 대학 재학/휴학/수료의 경우 소득, 지출, 재산이 다른 학력 유형에 비해 낮았다. 지역적으

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지출이 낮았으며 특히 재산이 서울 거주 청년과 2.92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다른 청년 가구 유형에 비해 청년 1인 가구는 청년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소득, 지출 및 재산 등이 낮게 나타났다. 청년 가구와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을 보면, 청년 1인 가구는 소득에 비해 지출 수준이 모두 높았다. 전체적으로 청년 가구는 소득 대비 지출



표 4. 청년 가구와 청년 1인 가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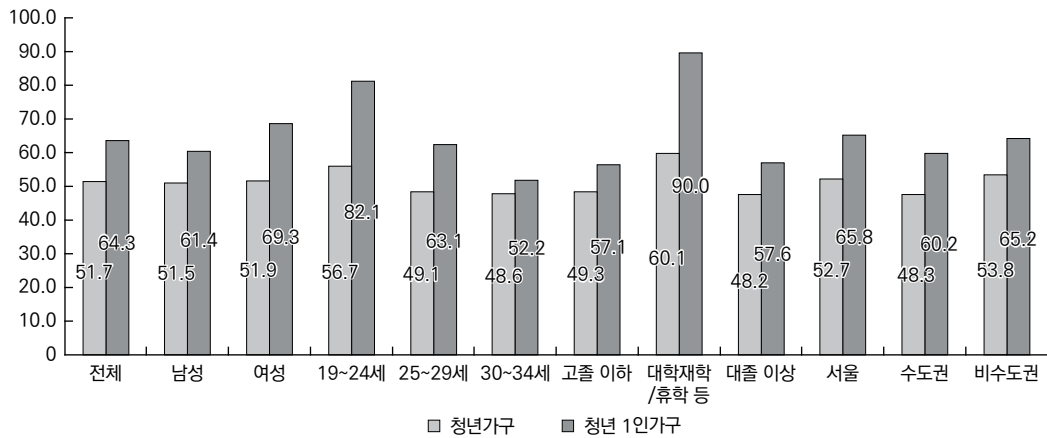
(단위: 만 원/월평균)

구분		총소득		총생활비		총재산	
		청년 가구	청년 1인 가구	청년 가구	청년 1인 가구	청년 가구	청년 1인 가구
계		469.1	205.6	242.6	132.1	29,880.5	4,368.1
성별	남성	464.8	218.9	239.6	134.3	30,332.5	4,369.0
	여성	474.0	185.9	245.9	128.9	29,369.9	4,366.8
연령	19~24세	456.3	149.9	258.6	123.0	28,497.3	2,417.4
	25~29세	485.9	207.3	238.6	130.9	32,556.2	4,951.5
	30~34세	467.2	280.0	227.1	146.2	28,755.8	6,314.9
학력	고졸 이하	430.8	240.0	212.3	137.1	25,730.9	5,200.0
	대학 재학/휴학/수료	446.7	135.5	268.6	122.0	27,924.2	2,356.7
	대졸 이상	498.1	237.7	240.3	136.8	32,746.8	5,374.1
지역	서울	481.5	204.0	253.7	134.2	43,897.5	7,189.8
	수도권	506.5	233.4	244.8	140.6	34,833.9	5,681.3
	비수도권	438.6	196.6	236.0	128.1	20,231.2	2,463.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그림 2.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 소득 대비 지출 비율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비율이 51.7%이지만, 청년 1인 가구는 64.3%로 12.6%포인트 높았으며, 19~24세 청년 1인 가구는 82.1%, 대학 재학/휴학/수료 등은 90.0%

까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지출 수준이 높다는 것은 저축 등을 충분히 할 수 없고 향후 결혼, 출산 혹은 주택 마련 등을 위해

표 5. 청년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 종류별 수준

(단위: 만 원/월평균)

구분		총부채	부채 종류별 수준		
			학자금 부채	주택 관련 부채	월평균 이자
계		6,577.0	875.0	8,416.3	32.8
성별	남성	6,538.2	838.2	8,657.7	33.3
	여성	6,618.4	917.5	8,181.1	32.3
연령	19~24세	5,248.7	640.8	7,499.6	30.4
	25~29세	5,699.2	817.5	7,490.7	28.3
	30~34세	8,314.3	1,423.5	9,355.6	37.9
학력	고졸 이하	5,927.6	876.4	7,509.8	34.7
	대학 재학/휴학/수료	5,774.7	729.3	8,190.2	32.5
	대졸 이상	7,127.4	990.5	8,794.9	32.2
지역	서울	8,677.6	863.5	10,301.1	40.8
	수도권	6,269.4	890.4	8,446.9	30.2
	비수도권	5,665.6	862.9	7,305.0	30.8
가구 형태	청년 부부(한부모)+자녀	8,031.6	1,946.9	8,791.8	31.5
	청년 부부	8,080.3	965.1	8,897.1	30.6
	청년 독립 1인	3,105.1	765.4	4,114.3	21.7
	청년 독립 기타	6,180.9	457.4	8,188.3	61.5
	청년 비독립 1인	2,023.7	924.0	-1)	14.2
	청년 비독립 기타	5,225.9	1,485.6	-1)	25.4
	부모 동거 청년	6,583.6	801.6	8,673.5	33.3
	부모 동거 청년 기타	11,193.6	300.0	12,164.2	36.8
	기타	3,092.6	761.7	5,073.2	4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원자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의 분석은 청년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실제 부채가 있는 청년 가구만을 대상으로 보면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한다. 〈표 5〉는 청년 가구 중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총부채 규모는 6577만 원으로 전체 청년 가구의 부채 규모에 비해 세 배 정도 많았다. 부채 유형별로도 관련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 관련 부채가 가장 많은 8416만 3000원이었으며, 학자금 부채 역시 875만 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성별로 보면 총부채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없었지만 학자금 부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택 관련 부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다른 연령 청년에 비해 총부채, 학자금 및 주택 관련 부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자금 부채가 1423만 5000원으로,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학자금 부채를 갚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30~34세는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학자금 부채가 오랜 기간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인다.

정책적으로 일정 기간 성실하게 학자금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경우, 일정 부채에 대해서는 탕감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4. 나가며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청년 가구의 소득, 지출 및 자산(부채 포함) 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 가구의 소득, 지출 및 자산 등은 청년 연령, 지역, 가구 형태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에 비해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청년 가구의 생활이 열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표에서 보듯이 청년 독립 1인 가구는 모든 지출 항목에서 다른 청년 가구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소득 대비 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기 혹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부모 세대에게 소득과 지출을 의존하고 있는 청년 비독립 1인 가구 역시 생활비 수준이 백만 원 이상으로 나타나 이들 청년을 부양해야 하는 부모 세대의 부담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부부 가구는 소득과 지출이 안정적인 편이지만 결혼 및 출산과 더불어 주택 관련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모기지 등 이자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 부부, 청년 부부와 자녀 가구는 학자금 부채 수준도 높아 학창 시절의 부채가 결혼 이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는 점에서 이를 줄여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 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과 향후 대책을 제안해 보면, 무엇보다 청년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첫째,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확대와 보완을 하고 있지만,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년 1인 가구는 소득 대비 지출이 많고 식비, 주거비 등 기본적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기본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제안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2020년 기준중위소득 45%)하여, 전월세 청년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대상으로 특례 조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가구의 부채 부담을 경감해 주는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조사에서 보듯이 청년 부부 가구 등은 결혼 이후 주택 마련 관련 부채와 더불어 학자금 부채에 대한 부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부채 부담은 청년 가구의 소비가 줄어들게 하거나 향후 출산 등 자녀를 양육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혹은 자산 지원 형태로 결혼 초기 자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채 등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청년들의 지출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첫째, 둘째 정책과 관련해 청년 가구들의 지출을 보면 여러 지출 항목에 대해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지출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소요되는 주거비 이외에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금융비용 등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항목들에 대한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부모에게 의존하며 생활하는 비독립 1인 청년 가구는 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대학생 등을 위한 학자금 보조, 장학금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이 높다는 점에서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0. 5. 13.). 2020년 4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 정세정. (2020).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 무엇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보건복지 이슈앰포커스, 370호, 1-8.
- 정세정, 김태완, 김문길, 정해식, 김기태, 주유선, ..., 송아영. (발간 예정).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 한국은행. (2020. 4. 23.). 202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보도자료.